독자투고 교문 진입로 계획 담당자가 드리는 글

일방통행·충분한 중앙분리녹지 필요
진입로 폭은 학교얼굴…위상과 관련

경희 서울 배움터의 진입로 공사 계획을 놓고 학교와 학생간의 끝이 보이지 않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여러 학우들과 만나 보려는 이유는 계획을 담당했던 당사자로서 대부분의 학우들은 막연한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이번 학생회에서 제시한 대안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안" 또는 "전례없는 특수한 안"이라고 말들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계획안이 어떠한 쉽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요목조목 깊이 따져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여러가지 면에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평범한 도로 계획이라는 생각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 진입로 계획은 전체 MASTER PLAN상의 순환 계획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경희 수원 배움터에는 교통을 처리하는 체계가 전무하다.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책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일방통행 방식(ONEWAY SYSTEM)의 도입이다. 현재 교내의 도로 선들은 양방 통행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러기에는 각 건물들로 연결되는 도로의 폭이 너무 협소하다. 교통 계획이란 차량이나 보행자 모두의 효과적인 순환을 의미한다고 했듯이 보행자에겐 결을 권리가 있고 적절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 중앙 분리 녹지의 폭을 승용차뿐이 아닌 셔틀버스도 어유있게 회전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제공한다. 그것은 도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 즉 1호관과 2호관 사이의 확량한 공간을 줄더 SCALE상의 분절을 통해 사람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의미에서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경우에 공사비는 다른 방법과 비교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당국자들이 문제시하는 하키장 사용에 관한 것은 4차선의 직선화 도로 계획이라면 어차피 이전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ONEWAY SYSTEM에도 부합하면서 전장12M의 대형 버스가 회전할 수 있는 15M의 중앙 분리 녹지를 제안한다. 참고로 2호관 밑의 주차장에서 버스가 교내·외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대차선으로 가로지르는 것이 필요한데 중앙 분리 녹지가 협소하게 되면 진입로 외각에서 양방 차선 모두를 주시해야 하지만 버스의 전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중앙 분리 녹지가 제공되면 진입 차량이나 주행중인 차량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또한 전경한 의미에서의 일방통행 방식(흐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 중앙에 제공된 녹지 공간을 내버려두지 않고 일상적으로는 등·하교시 거니는 오솔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특수한 경우 예를 들자면 대동제나 여러 단대, 학과별 기획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 거리라는 것은 진입로의 주변에 건설될 노천 소극장이나 교문앞 소광장, 상징 조형물, 각 단대 진입로 주변의 휴식 공간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중앙 녹지의 용도에는 기능적인 측면이 우선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넷째 : 진입로의 폭은 학교의 얼굴모서의 위상에 적절한 규모로 개발되어야 한다. 영통지구 신도시 개발에 의하여 학교앞에는 노폭40M 이상의 대규모 도로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배움터의 주된 진입로의 규모가 너무 협소하여서는 외부에서의 식별 문제나 효과적인 진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 지역 주요 종합대학의 진입로의 폭이 30M내외라는 것을 참고할 수 있겠다.

이 내용들은 학우들의 이해를 돕는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회의석상에서의 학교 당국자들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나 학생회측의 기능적 설명의 부족 등이 현재의 상황을 낳고 있다고 생각하며 정회의 미래를 위해 커다란 한걸음이 되도록 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앞으로의 작업에 임해야 하겠다.

강 종 현
〈건축·4〉

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박 태 용
(미주치과원장·고침동심회장)

△박태용(미주치과원장, 고침동심회장) : 1천만원 △진경린(문리대 수학과 교수) : 1백20만원 △김태권(국문학과 교수) : 2백만원 △주동준(문리대 화학과 교수) : 1백80만원 △고경식(국문학과 교수) : 5백만원 △김상태(서울 교무과장) : 2백40만원 △이중희(서울 교무과 수업주임) : 1백20만원 △김주섭(서울 교무과 교무주임) : 1백20만원 △윤제학(서울 교무과 직원) : 1백만원 △김정희(서울 교무과 직원) : 1백만원 △김장원(서울기획관리실 검수주임) : 1백20만원 △연경숙(사대 영어교육과, 동문) : 2백만원 △문영미(의대 병리학교실 직원) : 1백만원 △정관수(전자공학과 교수) : 2백만원 △송영재(전자계산공학과 교수) : 2백만원 △조동호(전자계산공학과 교수) : 2백만원 △이현수(전자계산공학과 교수) : 1백50만원 △채옥삼(전자계산공학과 교수) : 1백20만원 △이승룡(전자계산공학과 교수) : 1백20만원 △한치근(전자공학과 교수) : 1백20만원 △조용호(의학과 교수) : 5백만원 △서형심(병지성모병원 방사선과 과장, 의대 10회졸) : 1백만원 △최관호(비서실 주임, 동문) : 2백만원 △김승태(법대 행정학과 교수) : 2백만원 △강현숙(간호학과 교수) : 2백만원 △송명섭(미술교육과 교수) : 1백50만원 △홍찬용(문리대 수학과 교수) : 1백만원 △고기재(체대 체육학과 교수) : 1천만원 △유근령(체대 체육학과 교수) : 2백만원 △민준기(정치외교학과 교수) : 3백만원 △최영근(체대 체육학과 교수) : 2백만원 △장정옥(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 3백만원 △윤병호(의예과 2년 윤정섭의 父) : 1백만원 △변장자(간호전문대학 학장) : 3백만원 △최상순(간호전문대학 교수) : 2백만원 △장광자(간호전문대학 교수) : 1백만원 △김원옥(간호전문대학 교수) : 1백만원 △조희숙(간호전문대학 교수) : 1백만원 △원정숙(간호전문대학 교수) : 2백만원 △왕명자(간호전문대학 교수) : 2백만원 △김경화(간호전문대학 교수) : 2백만원 △백승남(간호전문대학 교수) : 2백만원 △현경선(간호전문대학 교수) : 1백만원 △이나미(간호전문대학 교수) : 1백만원 △한상숙(간호전문대학 교수) : 2백만원 △권순경(간호전문대학 교수) : 1백만원 △유성자(간호전문대학 교수) : 2백만원 △이기영(간호전문대학 직원) : 1백만원

이상 11월 6일부터 12일까지의 접수 내역임.

※ **고침** : 지난 11월 8일자에 게재된 발전기금출연자명단중 '박기완교수'를 '박기단(정경대학 경영학과)교수'로 바로 잡습니다.

경희LAN이야기⑦

정보를 파일로 저장하기

이번에는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를 파일로 저장하는 '갈무리'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자. 갈무리는 화면 캡쳐(Capture)라는 명령어의 우리말로서 호스트에서 전송되어 오는 텍스트나 코드를 파일로 만들어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만하자면 LAN에 접속한 후에 사용자가 관심이 있던 내용이 LAN에 올라와 있다면 그 내용을 메모해 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갈무리를 두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하겠다.

(1)이야기 프로그램 자체의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는 모뎀으로 접속한 경우로서 F10을 선택한 후에 갈무리라는 메뉴를 선택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화면 갈무리를 선택하며, 화면 갈무리를 하게 되면 화면에 출력되는 문자를 파일로 저장하게 되고, 코드 갈무리를 하게 되면 수신되는 모든 코드 갈무리되어 파일로 저장된다. 다음으로 저장할 파일명을 입력하면 갈무리가 시작되는데, 초기치로 지정되는 파일의 이름은 그와 함께 오늘 날짜가 들어가게 되므로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언제 갈무리한 파일인지 알 수가 있다.

이미 갈무리를 한 파일이 존재하고 있다면 새로 갈무리되는 내용은 그 파일의 뒷부분에 추가되어 들어간다. 갈무리는 한번 선택하면 그 기능이 실행되고, 한번 더 실행시키면 그 기능이 중지되는 토글식이므로 마치고 싶으면 이 기능을 다시 한번 선택한다. '갈무리 시작'의 단축키는 (Alt+L)이며 (Ctrl+End)를 누르면 잠시 중단할 수 있고, 다시 (Ctrl+End)를 누르면 중단된 갈무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갈무리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화면 하단의 상황막대에 (갈무리 끝)과 (갈무리 중)이라고 메시지가 나타나니 그것을 확인하면 된다.

화면 갈무리와 비슷한 것으로 특수기능중 화면 저장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한 페이지의 화면을 보관하는 것으로 확장자는 CHA라고 자동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2)LAN자체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작업중 화면을 캡션(Caption)하고자 할때는 단축키 (Alt+O)를 누르면 되며 캡션을 마칠때에는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며 캡션된 화일의 이름은 ktn.HWP로 자동으로 저장된다. 이 외에도 여러 도움말을 원한다면 (Alt+F9)를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경영시스템 연구회 UNIX팀

朔風

깨침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정부와 언론

최근 신문지상에는 북한의 핵사찰을 둘러싼 갖가지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한다. 물론 핵사찰에 대한 보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미국의 선제공격설까지 거론 되고 있다. 그런 기사들은 올해가 가기전에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결말을 보려는 미국의 의지와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그 전모가 무엇인지 궁금하기 이를데 없는 어떤 계획을 때론 직접적으로 때론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가끔 신문을 보다가 이것이 미국신문인지 우리나라 신문인지 분간할 수 없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왜일까? 그런 느낌은 나만이 받는 것일까? 애석하게도 미국의 유명 일간지 보도를 인용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예기하는 언론은 있어도 그것은 발도 안되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언론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핵문제는 어떠한 단판이 있더라도 대화로서 풀어 나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언론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언론들이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도 하고 공격을 받은 핵시설에서 방사능이라도 유출 되어 수많은 북한 주민이 방사능에 오염되고 생태계까지 파괴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어떤 논조를 펼지 의심스럽다. 그때는 핵확산을 방지하고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필요악적인 무력행사였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적 신의를 무시한 북한이 화를 자초한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할 것인가? 북한의 핵개발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미국과 언론에 묻고 싶은 말도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핵문제의 본질은 모든 핵의 공포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개발만을 막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사실 북한의 핵문제야 따지고 보면 우리민족에게 가장 직절된 문제이다. 국제정치학상 최악의 경우 우리민족은 피해자는 물지언정 가해자는 될 수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대응은 우리정부가 가장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공조체제의 확고함과 이해의 일치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이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독일이 통일되기전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어 있을때 미국의 세계전략이 핵에 의한 보복공격에 기초해 있은즉이 있었다. 이때 서독정부는 동독에 대한 핵보복공격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유는 단하나였지만 가장 큰 것이기도 했다. 바로 같은 게르만 민족이라는 것이다. 우리정부와 언론에는 이러한 민족적 자존심이 없는 것인가? 얼마전 성철 큰스님이 열반에 드셨다. 그 큰스님은 생전에 깨달음과 깨침에 대해 자주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애따르면 깨달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요 깨침은 몸으로 아는 것, 즉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다. 또한 깨달음에 머물지 말고 깨침으로 경전할 것을 부탁했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깨달음을 깨침으로 오해하여 중도하차하는 일"이라고 설파했다고 한다. 막상 큰스님을 보낸 지금 이말을 생가해보면 우리나라의 정부나 언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싶다. 깨달음은 있으나 깨침이 없는 정부. 깨달음은 있으나 깨침이 없는 언론.

우리정부의 위정자나 정부관료, 그리고 언론인들이 아직도 사회 초년병인 나만큼의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예전의 군사정권시대에 비하면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깨침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식이 천박한 자의 지나친 교만일까?

〈吉〉

알림터

교수동정

최호영 교수 방일

【서울캠퍼스】▲조경삼·최용묵(의대·의학)교수=15일부터 20일, 23일까지 각각 학회참석차 태국 방문 ▲박순영(의대·의학)교수=16일부터 19일까지 학술논문 발표차 일본방문 ▲장성구(외대·외학)교수=18일부터 27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방문 ▲이경섭(한의대·한의학)교수=15일부터 26일까지 DITI 특별연수 참석차 미국방문 ▲최호영(치대·치의학)교수=15일부터 20일까지 아세대학방문및 학회참석차 일본방문 ▲최부병(치대·치의학)교수=19일부터 22일까지 Pierre Fauchard 총회참석차 일본방문.

【수원캠퍼스】▲안봉원·김광래·서주철(산업대·조경)교수=15일부터 19일까지 세미나 참석차 일본방문 ▲허유·권영하·우제건(공대·섬유공)교수, 장승호(공대·기계공)교수=각각 12일부터 17일, 13일부터 17일, 13일부터 18일, 13일부터 17일까지 섬유·기계 전시회 참석및 연구자료 수집차 일본방문.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정미라(국문·2) ▲경성식(생물·93) ▲강은석(생물·89) ▲이문태(행정·3) ▲신규호(정외) ▲박성현(정외·2) ▲조성훈(경제·4) ▲손범성(무역·2) ▲권광혁(의대) ▲박낙용(치의학·4) ▲엄윤아(성악·3) ▲이윤재(축구부) ▲윤상용(삼의원 501) ▲문영욱(삼의원 321) ▲정영환(삼의원 222) ▲박정훈(삼의원 407) ▲이상윤(삼의원 416)

【수원캠퍼스】▲심광섭(일문) ▲이지영(회계·2) ▲김동순(환경) ▲최수환(기계·1) ▲이택희(기계) ▲고경국(기계·1) ▲최호진(전자·2) ▲정충천(전자·1) ▲서덕영(전자) ▲김창윤(화공·1) ▲고봉수(건축·4) ▲최문성(건축·2) ▲전주경(토목·1) ▲김상우(원자·3) ▲김창수(농학·3) ▲이정명(원예) ▲원정희(원예·3) ▲강병길(식공·2) ▲박기홍(식공·1) ▲신준식(조경) ▲이동호(조경·4) ▲정수비(도예·3) ▲이상호(체육·4) ▲문명훈(물리 대학원) ▲여용우(레이저공학 연구소)

습 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가방=조영(한의대·89)

분 실

습득자 편집실로

【수원캠퍼스】▲김정미(불문·2)=잘생지갑(학생증,컴퓨터수강증,입합,수첩) 지난1일 교내 ▲최윤정(불문·1)=갈색지갑(학생증,현금카드) 지난 12일 외대303강의실 9교시후.

동문모임

제일고 졸업생환송회

【서울캠퍼스】▲우신고=20일 오후 6시 보스 ▲전북사대부고=19일 오후 6시 마로니에 ▲청서고=16일 오후 6시 경희회관 ▲환일·예일고=20일 12시 정문 ▲목포향우회=20일 오후 2시 보디가드 ▲울산향우회=20일 오후 6시 마로니에.

【수원캠퍼스】▲제주계일고 졸업생 환송회=21일 오후 3시 연성호프(한국외대옆) ▲조대부(여)고=19일 오후 5시 30분 공대식당 ▲부산양정고=18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경희여고=18일 오후 5시30분 외대앞 ▲진주고 졸업생 환송회=20일 오후 5시 대관령 소고기부페(양재 서초구청 건너편) ▲호우 졸업생 환송회=20일 오후 2시 워너스호프(단국대앞)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 - 삼성

이제 그린기능에서, 성능에서, 편리성에서 한차원 높은 수준의 컴퓨터를 만난다

미국 환경청(EPA) 에너지스타 규정 충족

초대용량 HDD 기본 250MB, 최대 340MB 내장

전원을 넣으면 작업환경이 바로 뜨는 PRE-INSTALL기능

팬티엄 및 멀티미디어 기능으로 확장 가능

인간을 소중히 환경을 소중히

삼성전자의 최첨단 그린테크놀로지가 탄생시킨 또 하나의 역작,

삼성그린컴퓨터Ⅱ ——

그린기능은 물론 성능에서, 편리성에서 한차원 높은 기준을 제시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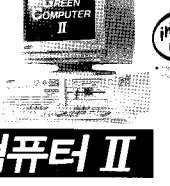
그린컴퓨터의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그린UP ▪PMS 기능을 적용한 초절전, 유해파 방지 실현 ▪저발광 가능 포장박스 및 종이쿠션 사용 ▪폐수 센서를 통한 저소음 실현

확장UP ▪팬티엄 오버드라이브 소켓 장착 ▪스카시Ⅱ SCSI 포트 장착 ▪7개의 확장 Slot 및 5개의 Bay 제공

성능UP ▪VESA 로컬버스 및 윈도우 가속기 탑재 ▪고해상도 울트라 VGA 모드 내장 (기본 1MB) ▪250MB 및 340MB의 대용량 HDD 내장

활용UP ▪윈도우즈 2.0등 윈도우용 S/W 7종 내장 ▪NOSL, HDD 확장시 자동탑재기능 내장 ▪컴퓨터 활용을 돕는 교육, 정보, 상담, A/S의 원스톱 지원



삼성 그린 컴퓨터 Ⅱ

기술의 힘으로 세계의 겨루는 SAMSUNG 삼성전자

C&C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energy EPA POLLUTION PREVENTER

고객안내센터 ▪수신자부담전화 080-022-3000 ▪직통 02-541-3000

▪국내영업본부 C & C판매사업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0(반포지구 개발빌딩 B동) ▪고객센터(공개 및 A/S) ▪지방영업소 ▪지방영업소 ▪상설전시장